

독어방언분류와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시기¹⁾

송완용(서강대)

1. 머리말

고지독어 음운추이란 게르만어(germ.)의 음성들이 고대고지독어 모어(母語 (vorahd.) 시대에 음성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된 현상을 말한다.

유형1: 무성폐쇄음 → 파찰음 / 단어초두음 위치나, 복자음(-pp- -tt- -kk-)인 경우

p t k → pf ts kx

예: germ. *plegan, satjan ~ settian ahd. pflegan, setzen

유형2: 무성폐쇄음 → 마찰음 / 단모음 뒤에서는 단순마찰음으로, 장모음 뒤에서는 중복마찰음으로

→ f(f) s(s) h(h)

예: germ. etan, slapan ahd. ezzan, slafan

유형3: 유성폐쇄음 → 무성폐쇄음

b d g → p t k 예: germ. geban ahd. kepan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들이 모두 똑같은 정도로 실행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조음위치 면에서 치음들(t d)이 연구개음들(k g)에 비해 추이된 정도가 훨씬 높았다. 조음방식 면에서는 마찰음실현이 파찰음실현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지독어권에는 추이가 발생했으나, 그중 남부독어권의 추이는 거의 완벽한 형상인데 반해, 중부권의 추이는 ‘계단식 형상’, 즉 추이실행 정도가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계단식 추이형상이 생겨난 연유는 무엇일까? 추이가 맨처음 발생한 진원지는 어디일까? 발생시기는 언제였을까? 추이가 남부권과 중부권에서 각각 자생적으로 발생했을까? 혹은 한 지역권에서 먼저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보급되

1) 이 글은 2001년도 한국독어독문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유사제목으로 발표했던 발표문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쓴 글이다. 또한 관련 참고문헌을 제공해주신 경상대학교 이재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있을까? 보급된 경우라면, 보급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동일시기에 기록된 문어 텍스트들에 추이/비추이형이 공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온통 수수께끼들로 덮여 있는 언어현상이다.

이러한 수수께끼 풀이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추이의 출력결과만이 현대 문자시대의 기록형식으로 남아 있을 뿐 그 이외의 일체사항들이 선사시대라는 미궁 속에 잠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이의 입력내용으로 위에 제시했던 유/무성 폐쇄음들(p t k/b d g)조차도 그저 가상의 재구의 단위들일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현 독어 방언권들에서의 음운추이 분포상分布相과, 현존하는 추이관련 초기전거들을 간추려보면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개관하는 동시에,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연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겠다.

2.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독어방언 분류

그림의 1880년도(4판)의 저술에 실려있는 <음운추이> 관련 장후는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글로 시작된다: “마침내 이제 우리는 독일어가 다른 언어들로부터 갈라져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만든 테마를, 동시에 독일어 내에서도 여러 부족어들이 서로 근본적인 차이를 갖도록 만든 테마를 다루게 되었다.”(그림 1880⁴, 392). 인용문의 두 번째 평가내용처럼, 음운추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어방언 분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고지독어 음운추이 실행여부와 정도에 따라 독어방언들을 3개의 대방언권들로 묶을 수 있다: ①저지독어 방언권, ②중부독어 방언권, ③상부독어 방언권(추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①과는 달리, ②와 ③은 추이발생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고지독어> 라는 대방언권으로 묶는 분류법도 있다).

2.1. 저지독어(Niederdeutsch = nd.)

추이가 발생하지 않은 북부 독어방언들 일체를 가리키는 대방언권 명칭이다. 이 방언권에서는 폐쇄음(p t k b d g)들이 모두 변화를 겪지 않고 2천년 전 무

럼처럼 발음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부독일이 저지독어권을 이루는데, 벤라트 선을 저지독어권의 남쪽 경계선(=등어선²⁾)으로 보통 삼고 있다. 벤라트 Benrath는 뒤셀도르프 시의 한 남쪽구역이다. 이 구역의 북쪽에 흐르는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선(이 선을 벤라트 선이라고 부른다)을 중심으로, 위쪽(북쪽)에서는 추이되지 않은 [ak]로 발음(maken)되는 반면에, 아래쪽에서는 추이된 [ax]로 발음된다(maxen). 그러나 벤라트 보다 더 북쪽지역들에서도 추이사례가 발견되는데, 즉 뒤셀도르프 위에 있는 위르딩엔 Ürdingen이라는 소지역을 통과하는 라인강에 또 하나의 등어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이 등어선 이북은 ik, mik, -lik 처럼 비추이형들로 발음되며, 이남은 추이된 ich, mich, -lich로 발음된다. 재귀대명사 sich의 추이형 발음은 이보다 더 북쪽으로 진출해있다(sich/sik).

그러나 음운추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여러 등어선들이 벤라트에서 겹치기 때문에(=대 등어선), 저지독어권과 고지독어권을 구분해주는 대표적인 등어선으로 벤라트 선을 삼고 있다. 저지독어권과 고지독어권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은 서→동쪽 방향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도시들을 경유하고 있다: 벤라트 - 카셀 - 데사우 - 막테부어그 - 프랑크푸르트(오더강변) - 포젠(현재 폴란드 영토)(지도 1과 2의 맨 위 진한 선이 벤라트 선이다).

저지독어라는 대 방언권을 다시 아래와 같은 중 방언권들과 소 방언권들로 구분할 수 있다.

- 1) 서부 저지독어권(=저지작센어권): 북부 저지작센방언(함부르그), 베스트팔렌방언(빈스터), 오스트팔렌방언(하노버)
- 2) 동부 저지독어권: 메클렌부어그방언(로스톡), 마르크방언(베를린), 폼머른방언, 저지프로이센방언(단치히)
- 3) 저지 프랑켄방언권: 현재의 네델란드어와 벨기에 독어
저지독어(저지독어nd·영어engl·네델란드어nl.) 발음형들을 고지독어hd(=표준독어) 발음형들과 다음과 같이 대비시킬 수 있다.

nd. Pund, ten, maken	engl. pound, ten, make
nl. Pund, tein, maken	hd. Pfund, zehn, machen

2) 등어선이란 특정 음성특징을 사용하는 지역/사용하지 않는 지역들간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지도상의 선(線)으로서, 방언경계를 구획하는 목적에 이용된다.

2.2. 상부독어(Oberdeutsch = od.)

남서부 독일도시인 칼스루에Karlsruhe 바로 위의 라인강변에는 슈파이어와 게르머스하임이 있다. 이 도시들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프랑크푸르트와 뷔르츠부르그 사이를 지나, 폴다 - 에르푸르트 - 푹트란드 남쪽도시인 호프 - 에르츠게비르게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대 등어선이 성립한다(이를 슈파이어 선/게르머스하임 선이라고 부른다. 이 등어선은 p>pf 추이여부를 기준으로 방언권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appel/apfel선이라고도 한다, 지도 1과 2의 맨 아래 진한 선에 해당한다). 이 등어선 아래(=남쪽)의 방언들이 상부독어 방언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운추이가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었음이 그 특징이다. 즉 마찰음화(p t k > f s x), 경음화(b d g > p t k), 파찰음화(t > ts, p > pf)가 이루어졌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모든 방언들과 프랑스쪽의 엘자스방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부독어권은 알레만방언, 슈바벤방언, 바이에른방언, 남부라인프랑켄방언, 동프랑켄방언 등으로 나뉘어진다.

알레만방언: 바젤 왼쪽의 준드가우Sundgau 지역으로부터 라인강줄기를 따라 동쪽의 보덴제 Bodensee로 이어지는 등어선 북쪽으로는 비추이형 Kind, 남쪽으로는 추이형 Chind [x]가 나타난다(준드가우-보덴제 선, 혹은 kind/chind선이라고 함). 이를 기준으로 저지 알레만방언과 고지 알레만방언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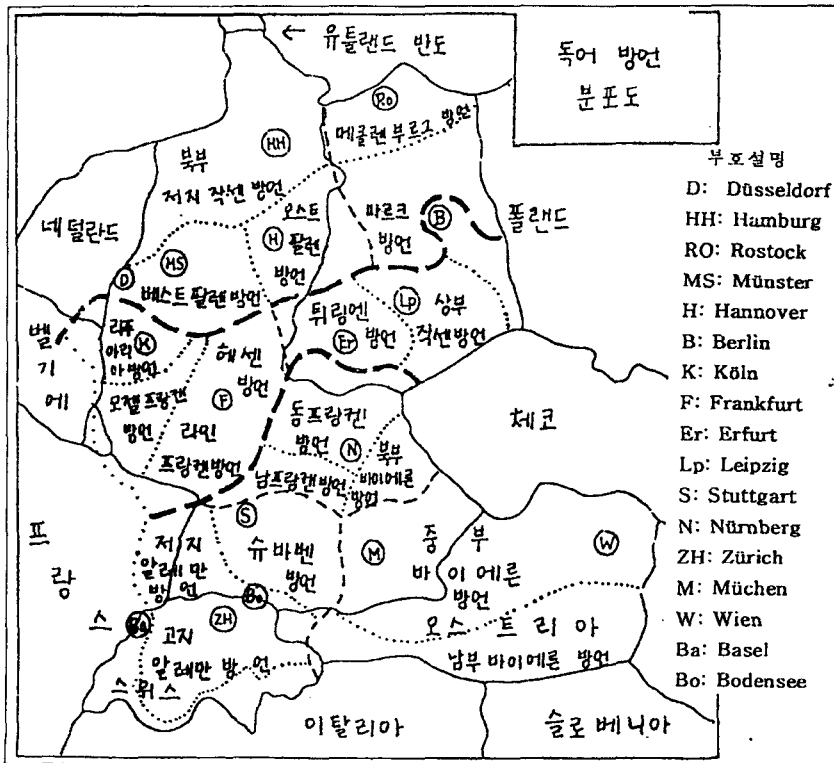
바이에른방언: 여타 바이에른방언들과는 달리, 남부 바이에른방언에서는 k > kch 파찰음화 추이가 유일하게 실행되었다. 예: kind > kchind, wecken > wekchen, denken > denkchen.

2.3. 중부독어(mitteldeutsch = md.)

벤라트 선과 게르머스하임 선 사이의 중부독일지역에 성립하는 방언들이 중부독어방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방언권의 특징은 음운추이가 상부독어권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특히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는 이른바 계단식 양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음운추이의 실행정도에 따라 여러 중/소 방언권들로 다시 나뉘어진다. 중부독어는 크게 동중부독어권과 서중부독어권으

로 구분된다.

중부독어권에서 동중부독어에 음운추이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파찰음 추이(p > pf, k > kx)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추이들이 관찰되어 있다. p > pf 추이의 경우, 초두음 위치에서 p > f형식으로 추이되어 있다. 이는 동중부독어omd/서중부독어wmd를 구분해주는 등어선(wmd. Pund, omd. Fund hd. Pfund)으로서, 폴다강과 베라 Werra강 사이에 위치하는 린 산악지대에 해당한다(지도 2의 카셀 아래로 그어진 수직 등어선에 해당한다). 중간음과 말음 위치에서는 p > pf 추이가 실행되지 않았다(md. Appel, nd. Appel, od. Apfel). 튀링엔방언, 상부작센방언, 쉴레지엔방언 등이 동중부독어권을 이루고 있다.



지도 1: 독어방언 분포도(송완용 1996, 273쪽)

서중부독어는 고지독어권의 다른 방언들에 비해 음운추이 실행정도가 가장 취약하며, 그것도 북쪽으로 갈수록 약화된 형상인 이른바 ‘라인지역 부채꼴추이형상’Rheinischer Fächer이 특징인 방언권이다. 즉 동쪽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카셀까지의 벤라트 등어선은 부채 손잡이에 해당한다. 등어선은 카셀을 지나고서부터 여러개의 음성차이 등어선들로 나뉘어져 부채살처럼 퍼진다. 이 부채꼴 형상은 상부독어와의 구분선인 게르머스하임 선으로부터 저지독어와의 구분선인 벤라트 선 사이에 펼쳐 있다(지도 2를 참조!). 서중부독어권은 다음과 같은 등어선들을 통해 다시 소 방언권들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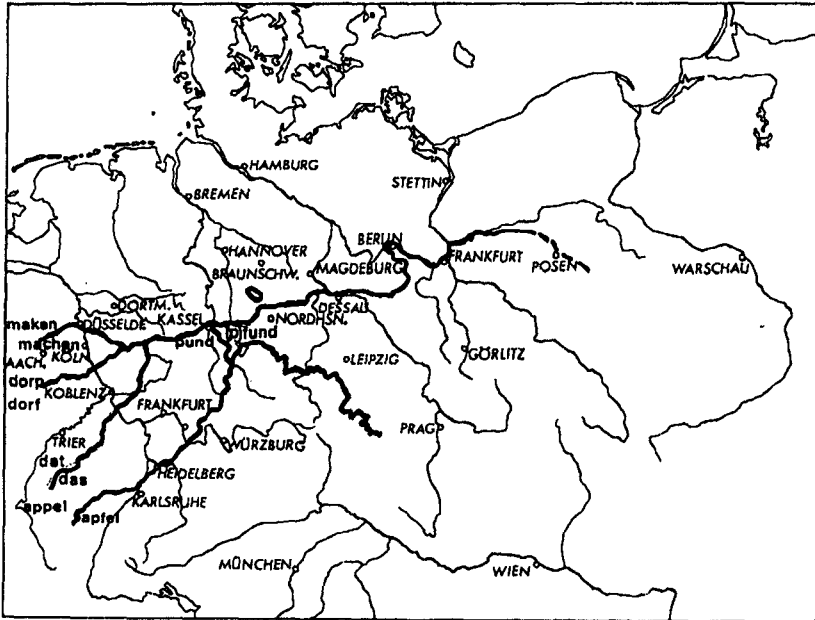
- 0) sik/sich선: 중요하지 않아도 위르딩 북쪽으로도 여러 개의 등어선들이 발견된다. 이 선의 북쪽지역에서는 모든 어형들이 비추이 저지독어형으로 실현됨. 라인지역 부채꼴 추이형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예: sik, ich, maken, dorp, dat, pund, appel, kind
- 1) 위르딩선(ik/ich): 이 선의 북쪽지역에서는 비추이형 ik로, 남쪽지역에서는 추이형 ich로 발음된다.

중부 북단 -----

- 2) 벤라트선(maken/machen): 저지독어/고지독어 구분을 위한 대표적인 등어선.
- 3) 아이펠 산맥선(dorp/dorf): 이 등어선을 통해 리푸아리아방언(켈른일대)과 모젤프랑켄방언(코블렌츠 일대)이 구분된다. 이 두 방언을 합쳐 중부프랑켄방언이라고 한다.
- 4) 훈스뤼크 산맥선(일명 바흐라흐 선, dat/das): 매우 중요한 등어선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일음절어휘 대명사들의 발음차이를 보여준다(wat dat et dit/was das es dies). 중부프랑켄방언(리푸아리아 방언+모젤프랑켄 방언)을 라인프랑켄방언(대표지역: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구분해주는 기능을 한다.
- 5) 게르머스하임선(일명 슈파이어선, appel/apfel): 프랑켄방언과 알레만 방언을 구분해 줌.

중부남단 -----(지도 2를 참조!)

- 6) 준드가우-보덴제 선(kind/chind): 라인지역 부채꼴 형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저지알레만방언과 고지알레만방언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한다.



지도 2: 중부독어권(라인지방)의 부채꼴 추이형상(Glück 1993, 510쪽)

3. 고지독어 음운추이연구를 위한 주요 전거典據

음운추이 해석을 위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영역은 관련 옛 언어자료이다. 독일어(=고대고지독어)로 적혀졌고, 추이현상이 반영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의 제작연대는 8세기초로 추정된다. 이 연대는 독일어 역사의 시작연대이기도 하다. 10세기까지의 언어자료는 현재 보존된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중세중기가 시작하는, 즉 중세고지독어 시대가 열리는 11세기부터는 보존자료의 숫자가 방대하다.

언어자료의 유형들로는 ①돌이나 쇠붙이 등에 새겨진 루넨문자 명문銘文, ②

라틴어단어 주해註解, ③(종교)문학작품, ④실용문(기도문·법전 등), ⑤(여행자용) 회화소책자, ⑥각종 명칭(인명 및 지명) 등이 있다. 서게르만족들이 남긴 루넨명문들(독일내에서 30여 개 정도 발견되었음)은 5~7세 기간의 것들로서, 대부분 고대고지독어 이전 단계의 언어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고지독어 음운추이 실행과 관련해 전거가 될 수 있는 고대고지독어 시대 이전의 주요 언어자료들을 다음에 간추리겠다. 물론 이런 자료들에 의거한 고지독어 음운추이 해석시도가 잘못된 가설이나 불충분한 가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문어형식이 구어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점·라틴어 문자를 사용한 표기한계점·표기법의 비통일성·원본과 복사본간의 혼동·필사 오류·그릇된 어원추정·판독착오 등, 자료 해석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음운추이 발생을 입증해주는 신빙성 있는 언어자료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세심한 원전비평이 전제되어야 한다.

- 1) 훈족의 왕 아틸라는 453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름이 Attila로 전래되었다. 그러나 1200년경에 쓰여진 니벨룽엔리드 에는 파찰음으로 추이된 Etzel로 표기되었다(Attila > Etzel). 이에 의거해 Kluge는 추이가 450~460년 간에 발생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 2) 554년에 상부이탈리아에서 전사한 알레만공작 Butilin을 558년경에 비잔틴 역사가인 Agathias는 Butelinos(폐쇄음 유지)라고 표기했으며, 574년에 Gregor von Tours 주교는 Buccellinus(cc=파찰음화 표기)라고 표기했고, 그리고 594년에 비잔틴 역사편찬자 Evagorios는 Buselinos(s=마찰음화 표기)라고 표기했다. Th. Steche는 이러한 자료들에 의거해 추이발생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폐쇄 치음 > 파찰음 추이는 554~574년 간에, 파찰음 > 마찰음 발달은 574~594년 간에 일어났다.
- 3) 573년에 프랑켄 왕국으로 침입해 온 랑고바르드 공작이름 Zaban이 Gregor von Tours 주교 연대기 등에 등장한다. 이 이름의 어원은 고대 노르딕어 tafn '희생'이라고 해석한다(Betz 1953). 이는 랑고바르드방언이 6세기말에 이미 파찰음추이를 겪었다는 반증이다(Steche 1937).
- 4) 남서부 독일 뷔르템베르그 주의 Tuttlingen 근교지역 부름링엔 Wurmlingen 의 한 무덤에서 출토된 창끝(7세기 초 제작)에 루넨문자로 새겨진 idorih라는 명문은 무기휴대자의 남자이름으로 판독되었다. 이 명

문은 독일내에서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의 추이전거로 흔히 간주되고 있다. 이름의 둘째성분 rih는 옛 게르만어의 rik(i)a '통치자'에서 유래했다. 즉 germ. k > ahd. h 마찰음 추이가 관찰된 예로 알려져 있다. .

- 5) 1984년에 투트링엔의 슈테텐Stetten 지역에서 신축건물지구 개발중에 발굴된 직경 1.3cm·높이 0.7cm의 은박반구(제작연대: 680년경)에는 a f me l k ud 라는 루넨명문이 새겨져 있다. amelkud f로 판독되었는데, 다른 문자들보다 위쪽에 있는 두번째 문자 f는 나중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a me l k ud f는 게르만어의 Amelgu(n)d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g > k 경음화 추이를 반증해주는 예이다.

이밖에도 알레만 방언에서의 이른 추이발생시기를 입증해주는 8세기 중엽의 상 갈 증서들St. Galler Urkunden이 있다. 즉 추이를 보여주는 인명들이 수록되어 있다. 잘츠부르크 친교서 Salzburger Verbrüderungsbuch에는 784년부터 10세기까지의 이름들이 바이에른 방언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이름들에는 추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84년에는 바이에른 방언에 추이가 관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부독어권에서의 추이발생도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반증해주는 증거들이 Schützeichel과 그의 제자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확보되었다.

- 6) 음운추이 징후를 보여주는 텍스트 유산들로서 특히 9~10세기에 트리어에서 제작된 문학작품들이 있다(Schützeichel 1976, 430).
- 7) 독어 문헌시대 초기부터 쾰른·에히터나흐 Echternach·트리어·아헨 등과 같은 중부 프랑켄 지역들에서 라틴어 필사본의 라틴어 단어들에 독어로 주해를 붙이는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Bergmann(1976)은 중부프랑켄방언으로 적혀진 56개의 주해 필사본들중 13개가 12~13세기에, 나머지는 8~11세기에 제작되었음을 밝혀냈다. 이 필사본들에는 음운추이가 실행되어 있다. 필사본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8세기 초반의 에히터나흐 복음서 Echternacher Evangeliar 주해가 있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중부 프랑켄지방에서의 이런 주해 사례가 당시 남부(상부)독어권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남부(상부)독어의 모범에 따라 주

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욱이 주해상의 표기들에는 프랑켄 지방특유의 음성현상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 결과 음운추이가 상부독어권으로부터 들여 온 수입현상이라는 전통적인 가설이 부정되고, 일종의 자생적인 토착현상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안되었다.

- 8) 5~9세기에 서게르만 부족법들이 성문화되었다. 프랑켄족³⁾의 부족법들중, 가장 오래 된것은 살리카 법전 Lex Salica(제작연대: 6세기 초)이다. 리푸아리아 법전 Lex Ribuarua(8세기 말, 혹은 9세기 초)의 경우, 7세기 경의 전간본은 분실되었고, 8세기 말 혹은 9세기 초에 제작된 필사본이 전래된다. 고지독어권에 속했던 리푸아리아 법전에는 여러 가지 추이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 staffulus ‘왕이 재판하는 석조건물공간’(f 마찰음화).

7-8세기에 제작된 랑고바르드 법전들로는 Edictum Rothari와 Edictum Langobardorum이 있다. 전자에는 음절초두음 위치에서의 $b > p$ 추이와 $t > s$ 추이가 실행되어 있다(walopaus, sculdhais). 그러나 t로부터 생겨난 s가 파찰음인지, 마찰음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 3) 프랑켄족은 다시 두 개의 부족으로 구분된다: 저지독어권의 북부 프랑켄족(잘리족이라고 함)과 고지독어권의 동부 프랑켄족(리푸아리아 족이라고 함, 쾰른일대 거주). 음운추이 발생고찰을 위한 게르만족의 이동과 거주지역별 부족형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세기에 역사상 등장한 프랑켄족(베저-라인게르만족)은 라인강 하류지방으로부터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진출했다. 현재의 독일남부와 스위스에는 엘베게르만족에 속하는 알레만족(3-5세기)과 바이에른족(5백년경)이, 북부 이탈리아에는 랑고바르드족(5세기)이 정착했다. 북해게르만족인 작센족은 엘베강 서쪽의 북독 지역에, 프리스족은 북독 해안에 거주했다. 헤센족과 튀링엔족은 중부독일지역에 머물렀다.

잘리 프랑켄족은 원래 지금의 벨기에·네델란드의 라인강 하류지방에 거주했다. 지금의 프랑스 영토인 갈리아를 정복한 후, 5백년경부터 잘리 프랑켄족은 다른 게르만족들을 굴복시켜 제국을 건설하려는 정복사업을 펼쳤다. 알레만족(536년)·바이에른족(536년)·작센족(772/804년)·랑고바르드족(774년)들이 최종적으로 프랑켄 제국령으로 편입되었다. 9세기에는 현재의 서유럽에 해당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특히 제국통일 과업을 완성한 칼 대제는 문화정책(특히 라틴어 원본을 독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늘날 우리들이 초기독어형식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들이 쓰여졌다. 언어적 통합경향을 기대할 수 있었던 최전성기에 프랑켄제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분열되었다.

- 9) 라인지방 지명들의 경우, 8-9세기에는 추이전거들이 많지 않으나, 10세기 부터는 추이형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각종 법전들과 문서들에 나오는 인명들도 추이실행을 보여준다. 특히 7세기경의 메로빙 프랑켄왕국의 주전화폐에 적힌 이름자료는 가장 이른 시기의 독어자료에 속한다. 라틴어로 쓰여진 문서들과 원전들에도 추이된 형식의 게르만 어원 단어들 이 다수 있다.

4.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연대

고지독어 음운추이에 관한 오랜 연구사를 둘러보면,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연구의 초점설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즉 그 전에는 음운추이의 발생지역과 이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들로의 보급경로를 규명하는 문제들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중부프랑켄 지방⁴⁾에 나타난 ‘계단식 음운추이 분포상分布相’(속된 표현을 쓰자면 ‘음운추이 혼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추이 발생연대⁵⁾를 규정해내기 위해서, 언어자료·언어체계 개념·언어변화의 보편원리 등과 같은 언어 내적 관점과 민족성·지리공간적 환경요인 등과 같은 언어외적 관점을 적용한다. 관점에 따라 추이연대는 매우 유동적으로 규정된다.

원전비평의 예: 3에 제시된 주요 전거들이 추이연대 규정을 위한 기준으로

- 4) 라인강 중류와 하류의 양안 지방들을 가리키는 지방이름으로서, 일명 라인란드 Rheinland라고도 한다. 남쪽의 슈파이어 로부터 코블렌츠·프랑크푸르트·트리어·아헨·필른·뒤셀도르프까지 이른다.
- 5) <추이 발생연대> 라는 용어를 최소한 2개의 단계들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①어떤 언어변화가 언어구조상에서 최초로 완벽하게 실행된 단계, ② 이렇게 언어구조상의 특징이 된 언어변화가 유추적으로 적용되는 등 구조적 특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대하는 단계(예: 모국어 사용자가 차용어휘들을 변화된 새로운 음성구조형식으로 바꾸어 모국어 어휘부문에 수용하는 능동적인 규칙적용 행위). 음운추이의 발생연대를 규정한다는 말은 위의 ①단계, 즉 음운추이가 한 언어의 발달과정에서 최초로 완벽하게 구조적 특징으로 실행된 시기를 밝혀낸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전비평을 거쳐야 한다.

훈족의 왕 아틸라의 이름이 사망당시(453년)까지 비추이형식으로 전래되었다는 성명자료에 근거해 추이가 450년경부터 발생했다는 Kluge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아틸라의 이름표기는 추이가 453년까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한가지 전거에 불과할 뿐이다.

554년에 사망한 알레만 공작이름 표기인 Butilin과, 사망후 574년의 표기형인 Buccellinus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언어자료이다. -cc- /ts/는 고지독어 음운 추이 결과가 아니라, 로마어 /ti/의 파찰음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agner 1997, 287-302). 랑고바르드 공작이름 Zaban < altnord. tafn 의 어원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

부름링엔 창 끝에 새겨진 룬문자 명문 idorih는 남자이름이라는 점이 일치된 판독결과이다. 이름의 둘째 성분 germ. rik(i)a > ahd. rih 는 k > h 추이의 예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고지독어 음운추이와는 관련없는 일반적인 마찰음화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다른 게르만방언들(고트어·반달어·고대영어·고대작센어·고대 스칸디나비아어)에서도 -k > -x 변화, 특히 -ik > -ix 변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Höfler 1956, 296-313). 말음위치의 i 모음 뒤에 나타나는 k 음의 마찰음화는 특정언어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음성변화에 해당한다. 기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대다수 룬문자 유물들이 제작된 시기까지는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Schwerdt 238쪽).

지금까지 학계에서 제안된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연대 가설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 상대적으로 늦은 발생연대 규정의 예

많은 학자들이 추이발생시기를 6세기 말~10세기 간으로 추정해, 최대한 일찍 잡아야 지금으로부터 1천 5백여 년 전에야 발생했던 비교적 연천年淺한 언어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언어변화보급의 파동설에 기초해 Braune(1874)는 상부독어권에서의 발생시기를 7세기로 추정한다. 이렇게 발생한 추이가 시공간 축에서 진원지로부터 물결 파형처럼 확산되어 보급되었다. 8세기 중엽에 최초

의 추이물결이 고지독어권 북부까지 도달했고, 8세기 하반기에 추이물결이 다시 올라 와, 9세기 초에는 추이가 일단락 되었다. 쾰른의 경우는 1450년 이후부터 추이형들의 위상이 유력해졌다.

Sonderegger 1979는 태동 무렵의 고대독어 방언들이 대규모 변혁과정에 있었으며, 부족방언별로 변화의 정도와 속도가 서로 차이 났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각종 전래명칭·루넨문자 명문·법전어휘·번역문학작품 등과 같은 전거들에 의거해 추이연대를 방언별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Schwarz(1927), Willmanns (1911), Brinkmann(1931)등도 이와 유사한 발생연대 규정법을 취했다.

5-6세기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시작: $t > z$, 33

6-7세기 음운추이의 계속기간: $p > pf, ff$

7-8세기 $k > kx, ch$ 추이까지 실행됨으로써 무성폐쇄음Tenuis추이가 종료됨. 폐쇄음 추이의 진원지는 알레만 방언지역이었다.

유성폐쇄음Medien추이가 시작됨: $b d g > p t k$. 이 추이는 바이에른 방언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유성폐쇄음 추이의 진원지는 바이에른 방언지역이었다.

8-9세기 유성폐쇄음 추이의 종료 (Sonderegger1979, 155쪽)

4.2. 상대적으로 이른 발생연대 규정의 예

추이의 남→북 보급설과 상반되는 이동설을 최초로 제안한 이가 Prokosch (1939)이다. 그는 추이의 진원지가 엘베게르만족의 고향인 북쪽이었으며, 민족 이동과 함께 추이가 남쪽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로마군이 설치한 리메스(=방어벽)로 게르만족이 몰려들어 이를 돌파해 상부독일을 점령하는 기간(기원무렵 - 4, 5백년 초까지)에 추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Bremer(1900)는 발생연대를 기원전 1세기로 보다 이르게 설정했다. 음운추이가 알레만족·바이에른족·랑고바르드족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엘베게르만족들(특히 랑고바르드족)이 함께 교류했던 시기, 즉 이들이 엘베강 하류의 취락지역들을 떠나 이동하기 이전의 시기로 잡았다. 그러나 브레머의 연대규정은 언어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주거인류학적 상황과 같은 언어외적인 기준에 의거했다.

Vennemann(1987)은 브레머의 이른 추이발생 연대규정을 언어학적 원리들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그림의 표준 음운추이 이론과 완전히 다른 자신의 음운추이 가설⁶⁾이라는 원대한 틀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추이가 매우 이른 시기(최소한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추이가 완료됨)에 발생한 현상임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 무성 폐쇄음계열 전체의 파찰음화: 폐쇄음의 마찰음화(예: p > f)는 언어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보편 변화경향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폐쇄음의 파찰음화(예: p > pf)는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더욱이 폐쇄음계열 전체가 일시에 파찰음화 하는 현상은 지상의 어느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폐쇄음들이 단계적으로 파찰음화 될 수 있을 뿐이다.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폐쇄음 계열 전체를 파찰음화 시켰기 때문에, 이 추이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 6) 이 글의 첫머리에서 소개했듯이, 그림Grimm의 음운추이 가설은 한 마디로 2단계 연쇄설이다(D > T^h > T^s). 연쇄설에 따르면, 저지독어 자음체계란 1차 음운추이(D > T^h)의 결과인 게르만어 자음체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고지독어 자음체계란 이 게르만어 자음체계가 한차례 변화를 더 겪어, 즉 2차 음운추이(T^h > T^s)를 겪어 생겨난 한 단계 더 발달한 체계이다. Vennemann의 분지설分枝説(T^h — T^s)

은 이러한 표준견해를 송두리째 부정한다. 즉 저지독어와 고지독어는 게르만어 체계(T^h)로부터 각각 다시 변화해 갈라진(=분지된) T^h 체계와 T^s 체계에 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면, T^s 체계를 출력해 낸 음운추이(그림의 용어로는 2차 음운추이, 혹은 고지독어 음운추이에 해당함)는 T^h 체계를 출력해 낸 음운추이(1차 음운추이, 혹은 게르만어에 해당함)만큼 오랜 발생역사를 갖고 있다. 즉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게르만어 음운추이만큼 오랜 출생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고지독어 음운추이도 게르만어 시대에 발생했다. 이런 까닭에 Vennemann은 고지게르만어 Hochgermanisch 음운추이와 저지게르만어 Niedergermanisch 음운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림의 추이가설과 펜네만의 가설은 출력의 결과면에서 똑같다(저지독어= T^h체계, 고지독어= T^s체계). 그러나 추이의 입력사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그림: D > T^h) (=저지독어), T^h > T^s(=고지독어), 펜네만: T^h → T^h (=저지독어), T^h → T^s (=고지독어). 이 밖에 음운추이는 현재의 고지독어권을 벗어나, 랑고바르드어와 동계르만족들에서도 일어났다(Höfler 1956). 추이발생지역을 부당하게 독어권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고지독어 음운추이> 라는 용어 대신에 <고지게르만어 음운추이> 라는 용어사용이 설득력을 갖는다.

- 2) 2.1에서 소개했듯이, 음운추이는 고지독어권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았다. 남쪽 상부독어권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나, 중부권에서는 추이/비추이 형식들이 공존하는 일종의 통일성 없는 추이 혼란상이 특징이다.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현상이라면, 현 추이양상보다 근본적으로 통일된 추이양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혼란스런 계단식 현 추이상은 음운추이가 매우 오래된 시기에 발생했음을 암시해주는 일종의 언어구조 내재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 3) 이른 발생연대를 입증할 목적으로 펜네만은 라인강 하류지방(켈른 일대와 아이펠 북부일대)에서 발견된 귀부인이름들을 전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이름들인 Chuchenehae와 Aufaniae 에 나타난 <ch> <h> <f> 문자들은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반영된 표기들에 해당한다. 즉 Chuchenehae 경우, 라틴어 접미사 -anehae 앞 성분의 어원은 Cuc-a 라는 하천이기 때문에, c /k/ > ch /kx/ 라는 파찰음화가 이루어진 예이다. 그러나 이런 펜네만의 어원語源규정이 아무런 입증절차 없이 전적으로 가상의 추리 결과 내려 졌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1차 음운추이 결과 생겨났던 게르만어 상의 무성 마찰음(h / x)을 정확하게 표기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라틴문자들이 사용되었다. <ch>는 그 중의 한 가지 표기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게르만어 어휘 hauha- 'hoch높은'가 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Neumann). 이런 어원규정에 따를 경우, <ch>표기는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파찰음화 /kx/와는 상관이 없고, 게르만어 음운추이와 관련된 예이다. 두 번째 귀부인 이름 Aufaniae에 대해서 펜네만은 어원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이만에 따르면, 접두사 au- '뫼' 와 *fanja '늪'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 4) 펜네만은 역사상의 다른 언어변화들과의 상대적 발생연대 비교법을 통해 고지독어 음운추이(=Hd. LV)가 매우 오래된 변화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서게르만어상의 중간모음 생략현상(Westgermanische Synkope = WS)과 다음과 같이 관련지을 수 있다(Vennemann 1987, 43쪽).

서게르만어 중간모음 생략현상(WS)이란 주강세 음절마디와 부강세 음절마디 사이에 있는 비강세모음이 탈락한 현상⁷⁾으로서, 모든 서게르만어들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매우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게르만어 *sezzen ‘setzen’의 직설법 3인칭 과거형은 *satida이다. 이 어형으로부터 고대 고지독어(=ahd.)형이 파생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① WS 발생 후, Hd. LV가 발생한 경우:

	WS	Hd. LV (t>zz)	Umlaut(a>e)
*satida [sa.ti.da]	---	*sazzita	*sezzita

[sa.ti.da]는 ‘경음절+경음절+경음절’ 구조이다. 두 번째 음절은 첫 번째 음절과 함께 하나의 음절마디를 형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i 모음이 생략될 수 없다. 즉 중간모음 생략규칙 적용이 불발되고, 고지독어 음운추이 규칙 및 변모음화 규칙이 적용된 sazzita와 sezzita가 고대고지독어 어형들이어야 했다. 그러나 고대고지독어의 자료에 의거해보면, sazzita, sezzita 어형들은 늦은 시기에야 간혹 발견될 정도로 희귀했다. 고대 고지독어시대에 원래 성립했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어형은 sazta였다. 이 어형은 다음의 ②와 같은 추이들의 순서에 따라 생겨났다.

② Hd. LV 발생 후, WS가 발생한 경우:

	Hd. LV (t>zz, d>t)	WS	Umlaut
*satida	sazzita	sazta	---
[sa.ti.da]	[saz.zi.ta]		

게르만 어형인 [sa.ti.da]에 고지독어 음운추이(t>zz)가 발생하면, ‘중음절

7) 주강세 음절마디 Fuß란 하나의 중음절이나, 두 개의 경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음절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중음절 = 자음+장모음(= Kŷ) 혹은 자음+모음+자음(= KVK), 경음절 = 자음+단모음(= Kŷ).

(KVK)+경음절+경음절' 구조로 변한다. 이 음절구조에는 둘째 음절의 모음 i를 탈락시킬 수 있는 중간모음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결과가 바로 고대 고지독어 어형인 sazta였다. 이런 적형의 출력이 나오려면,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서게르만어 중간모음탈락에 앞서 완료되었음이 전제된다. 즉 적형의 고지독어 어형을 파생시킨 규칙적용순서는 ①이 아니라, ②였다. 서게르만어 중간모음 탈락현상은 매우 일찍 발생했던 음성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일찍 적용된 고지독어 음운추이에 대해 훨씬 이른 발생연대를 설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옛 음성변화들간의 상대적 비교를 확대해, 펜네만(1987, 47쪽)은 다음과 같은 음성규칙 연대순年代順을 작성했다: '고지독어 음운추이 I(=파찰음화)-서게르만어 자음중복현상-고지독어 음운추이 II(마찰음화)-서게르만어 중간모음 탈락현상-움라우트(변모음화)-어간 유추현상(/x/<h>가 /k/<c,k>로 대체됨)'. 그러나 서게르만 자음중복현상이 고지독어 음운추이(파찰음화) 뒤에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Schwerdt 194쪽)는 식의 비판이 펜네만의 연대순에 가해진다. 결론적으로 펜네만은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시기를 기원전紀元前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언어변화의 보편성 원리를 도입하고 현재의 추이분포구도를 형성하기까지 큰 시간대가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원전비평도 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자칭 '올바른' 음성변화 발생연표年表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정작 펜네만의 추이발생 연대규정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실증적인 증거들이 없다.⁸⁾

4.3. 라인지방의 추이발생 연대

전통적으로 음운추이 발생의 진원지로 여겨진 상부독어권이 추이연구의 초점으로 삼아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중부독어권, 특히 서중부 독어권인 라인란드 지방이 연구의 초점으로 부상된 계기는 Th. Frings와 Schützeichel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지방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추이분포 양상, 즉 '계단식 추이상'·'부채꼴 추이형상'을 해석해내는데 주력한 점이다. 그러나 추이발생 문제와 관련해 이 지방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결과는 판이했다.

8) 이 글의 4.3장(펜네만의 부분적 제거설)에서 이러한 평가를 부연해 설명하겠다.

프링스는 중부독어권에서의 추이발생 가능성을 부정했다. 대신에 이 지역은 남쪽의 진원지로부터 전해 온 추이가 계단식으로 보급되어진 지역으로 간주된다. 즉 추이가 5백년 경에 상부독어권에서 발생해 북쪽으로 보급되었는데, 800년경에 슈파이어를 축으로 삼는 *appel/apfel* 등어선이 형성되었다. 다시 추이복상이 계속되어 9-10세기에는 쾰른 중심의 리푸아리아 방언권으로 진입해 1천년경에는 쾰른 남쪽에서 다수의 추이사례들이 나타났다. 쾰른 위쪽의 벤라트 선은 13세기 이 지방에 성립했던 소국가들의 영토경계선과 일치해 형성되었다. 14-16세기에는 추이복상이 더 이루어져 벤라트 선 위쪽에 다시 위르딩엔 등어선이 형성되었다.

슈츠아이헬은 추이가 이 지방에 등장했던 시기가 프링스의 가정보다 훨씬 빨랐음을 입증했다. 이 사실에 근거해 중부프랑켄 방언권은 추이 보급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아니라 추이가 발생했던 공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전기轉機가 마련 되었다. 이 지방의 고대 부족법으로 전래되는 <리푸아리아 법전>은 최소한 8백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전에는 추이형들이 수록되어 있다(예: *staflum*, f-마찰음화). 법률텍스트의 보수성에 근거해, 슈츠아이헬은 전래되지 않는 이 법전의 초간본(7세기)에도 이미 추이형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650년경의 루넨기록들에서는 추이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 지역에서 추이가 7백년 직전에 발생했다는 사변적인 결론을 내렸다(Schützeichel 355쪽). 한편 리부아리아 법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추이 전거가 슈츠아이헬의 제자인 Bergmann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7백년 경에 작성된 <에히터나흐 복음서 주해>들에서 추이형들이 발견되었다.

고대고지독어의 특성을 알려주는 문헌전거로서, 현재 어휘집이 가장 많이 전래되어 있다. 에히터나흐 복음서주해⁹⁾도 이러한 유형의 전거에 해당한다. 라틴어로 적혀진 복음서 필사본에 각 쪽의 여백에 석필로 해당 독어단어들을 첨

9) 베르그만의 저술 *Mittelfränkische Glossen*은 중부프랑켄 방언권에서 제작된 56개의 주석필사본 *Glossenhandschriften*들(이 중 13개는 12-13세기에, 나머지는 8-11세기에 제작되었음)을 분석했다. 에히터나흐는 고대고지독어 시대에 라틴어 필사본들에 대한 고지독어 주해가 이루어졌던 중부프랑켄방언권의 중요한 필경지역이었다. 베르그만은 상당량의 추이 예들을 새로 발굴해내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8세기에 제작된 에히터나흐 복음집주해의 정확한 명칭은 *Echternacher Glossen des Maihinger Evangeliiars* 이다.

가해 적어놓은 것이다. 8세기 초와 후반에 제작된 이 주해들에는 추이가 반영되어 있다. 이 주해집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바이에른의 Freising 수도원에서 제작된 8세기 후반의 Abrogans 주해집이 고대고지독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에히터나흐 주해는 아브로간스 보다 앞서 추이현상이 반영된 문헌에 해당한다. 또한 8세기 초에는 남부의 경우 주해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히터나흐 주해에는 몇가지 지역언어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 프랑켄(라인란드) 지방에서 추이현상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가설이 제안되도록 만든 단초가 되었다.

지금까지 제시한 언어전거들에 의거해, 추이의 발생연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680년경에 제작된 Stetten(알레만 방언권의 지역임)의 루넨문자 명문이 고지독어 음운추이를 반영해주는 가장 오래 된 전거에 해당한다. 다른 방언권들의 경우, 추이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랑고바르드 방언권의 로타르 법전Edictus Rothari (700년경), 바이에른 방언권의 잘츠부르크 친교서(784년경), 중부 프랑켄방언권의 에히터나흐 복음서주해(8세기 전반).
- 2) 에히터나흐 복음서 주해에 반영되어 있는 추이전거는 상부독어권에서 발견된 전거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더 이르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기록물이다. 이는 추이의 진원지가 남쪽 상부독어권이라는 전통적인 가설을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거에 해당한다. 라인란드에서 발견된 이러한 전거의 의의와 이 지방의 계단식 추이형상은 또 다른 연구테마이다.

5. 맺음말

이른바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발생도, 추이분포도 선사시대에 이미 종료되었다. 문헌시대는 결과만을 반영해준다. 그래서 발생의 원인·발생연대·추이단

계·보급의 방식과 과정·발생과 보급의 주체·관련시대의 언어상황과 인문지리적 환경(민족·지리·정치·사회구조 등)..... 추이와 관련된 이 모든 사항들이 선사시대라는 신비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추정수준의 해석들만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기존의 방대한 추이해석들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추이 발생연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일반경향과 기준들을 간추려 낼 수 있다.

- 1) 두 가지 유형의 발생연대설로 간추려진다: ①기원무렵 (혹은 그 이전 시대) 발생설, ②500-900년경 발생설. 이 두 유형의 발생 연대설들은 서로 5백년이 넘는 시간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전거에 근거한 연대규정 방식인가? 아니면 종족주거 및 이동과 관련된 고고학적 사실을 보다 중시한 규정방식이나? 에서 비롯되었다.
- 2) 고고학적 관점은 내륙게르만족의 선사시대(즉 기원무렵 혹은 그 이전의 시기)를 발생연대로 상정하지만, 가상의 추정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해 줄 전거들이 전혀 없다.
- 3) 문헌전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발생연대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비록 문어가 구어의 발달을 제 때에 반영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연대 규정을 위한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조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 4) 그동안 주요 방언권들에서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의 추이전거들은 다음과 같다: 알레만방언권(Stetten의 루넨문자 명문, 제작연대: 680년경,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관련해 모든 방언권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전거로 현재 평가된다), 랑고바르드방언권(로타르 법전, 7백년경), 바이에른 방언권(잘츠부르크 친교서, 784년경), 중부 프랑켄방언권(에히터나흐 복음집 주해, 700년경).

참고문헌

송완용 1996. 언어학 기초이론. 신아사.

- 송완용 1999. 음성학 산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 송완용 2000. 그림의 음운추이 이론과 반 그림가설. 독일어문학 제 13집, 323-347.
- 송완용 2001.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의의와 추이과정. 독어학 제 3집, 121-150.
- Bergmann, R. 19772. Mittelfränkische Glossen. Bonn.
- Betz, W. 1953. Das gegenwärtige Bild des Althochdeutschen, in: DU 5, H.6, S. 94ff.
- Braune, W. Zur kenntnis des fränkischen und zu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PBB.1, 1-56.
- Bremer, O. 1900. Ethnographie der germanischen Stämme, in: Grundriß der germanischen Philologie, Hrsg. v. Hermann Paul. Straßburg, 735-950.
- Bremer, O. 1927. Der Schleifton im Nordniedersächsischen, JVNSpF. 53, 1-32.
- Brinkmann, H. 1931. Sprachwandel und Sprachbewegungen in althochdeutscher Zeit, Jenaer Germanistische Forschungen 18, Jena.
- Fourquet, J. 1954. Die Nachwirkungen der ersten und zweiten Lautverschiebungen, in: ZfMaf 32, S. 1ff.
- Frings, Th. 1924. Rheinische Sprachgeschichte. Mitteldeutsche Studien 16, 1-54.
- Frings, Th. 1949, 19502, 19573. Grundlegung eine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Halle/S.
- Glück, H. 1993. Metzler-Lexikon Sprachen. Stuttgart.
- Grimm, J. 18222, 18804. Deutsche Grammatik. Göttingen.
- Grimm, J. 18683.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Leipzig.
- Höfler, O. 1956. Die hochdeutsche Lautverschiebung und ihre Gegenstücke bei Goten, Vandalen, Langobarden und Burgundern, in: Anzeiger der phil.-hist. Klasse der österr. Aka. d. Wiss. 24. S. 294ff.
- Kaufmann, F. 1915. Das Problem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in: ZfdPh 46, S 333.
- Laur, W. 1988. Hochgermanisch und Niedergermanisch. Bedenken gegenüber einer neuen Theorie zur Zweiten Lautverschiebung, Sprachwissenschaft 13, 118-150.
- Lechner, G. 1971. Zur II. Lautverschiebung im Rheinisch-Westmitteldeutschen. Diachronische und diatopische Untersuchungen. Halle.
- Mitzka, W. 1951. Stammesgeschichte und ahd. Dialektgeographie, in: WW 2,

S. 65ff.

- Mitzka, W. 1952. Die Begründung der althochdeutschen Sprachgeschichte durch die Alemanen, in: Grundfragen der Alemannischen Geschichte. Konstanz, S. 53ff.
- Neumann, G. Die germanischen Matronen-Beinamen, in: Matronen, 103-132.
- Prokosch, E. 1939. A Comparative Germanic Grammar. Philadelphia.
- Raevskij, M.V. 1972. Die hochdeutsche Lautverschiebung und das altoberdeutsche System der Geräuschphoneme, Halle. PBB. 93, 8-33.
- Schmidt, J. E. 1986. Die mittelfränkischen Tonakzente(Rheinische Akzentuierung), Mainzer Studien zur Sprach- und Volksforschung 8. Stuttgart.
- Schützeichel, R. 19762. Die Grundlagen des westlichen Mitteldeutschen. Tübingen.
- Schwarz, E. 1927. Die ahd. Lautverschiebung im Altbairischen (mit besonderer Heranziehung der Salzburger Güterverzeichnisse), in: PBB 50, S. 242ff.
- Schwerdt, J. 2000. Die 2. lautverschiebung. Wege zu ihrer Erforschung. Heidelberg.
- Sonderegger, S. 1979. Grundzüge deutscher Sprachgeschichte. Diachronie des Systems, Bd. I. Berlin/New York.
- Steche, Th. 1937. Zeit und Ursachen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ZDPh. 62, 1-56.
- Steche, Th. 1939. Die Entstehung der Spiranten in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ZDPh. 64, 125-148.
- Vennemann, Th. 1987. Betrachtung zum Alter der Hochgermanischen Lautverschiebung, in: Althochdeutsch, I. 29-53.
- Wagner, N. 1977. Butilin und die zweite Lautverschiebung, in: Sprachwissenschaft 2, S. 338ff.
- Wilmanns, W. 19113. Deutsche Grammatik. Gotisch, Alt-, Mittel-, und Wolf, N.R. 1981. Rez. von Sonderegger, Grundzüge deutscher Sprachgeschichte. Diachronie des Sprachsystems. Bd. 1, in: AfdA 92.
- Neuhochdeutsch. I. Strassburg.

Zusammenfassung

Dialektengrenzen in Deutschland und das Alter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Song, Wan-Yong(Sogang Univ.)

Die wichtigsten Theorien über das Alter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LV) sind die beiden folgenden: 1. ein sehr hohes Alter(wohl noch vor Chr. abgeschlossen), 2. ein relativ junges Alter(im Allgemeinen das 6.-10. Jh. n. Chr.). Die beiden Datierungen weichen um über ein halbes Jahrtausend voneinander ab. Diese Abweichungen gehen auf unterschiedliche Methoden der Altersbestimmung zurück: entweder datiert man nur anhand schriftlichen Zeugnisse oder aufgrund von etwas spekulativ ethnologischen Erwägungen. Die letztere lässt zwar ein hohes Alter der LV zu, gibt aber es keine sicheren Belege dafür. Deshalb kann nur sprachliches Material eine sichere Basis für die Datierung der LV sein. Das gilt immer noch, wenn auch die Schreibung i. d. R. Veränderungen in der gesprochenen Sprache nicht rechtzeitig widerspiegelt. Die ältesten Belege für die wichtigsten Dialekte sind die folgenden: Die alemannische Runeninschrift von Stetten (ca. 680, wohl der früheste Beleg überhaupt für die hd. LV), Handschrift des langobardischen Edictus Rothari (um 700), das bairische Salzburger Verbrüderungsbuch(784), die mittelfränkischen Glossen des Echternacher Evangeliars (um 700).

[검색어] 고지독어, 음운추이, 고지독어 음운추이, 2차 음운추이
Hochdeutsch, Dialekte, Lautverschiebung, Hochdeutsche Lautverschiebung

송완용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문학부 독어독문학과

songwy@ccs.sogang.ac.kr